

## 4월 첫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아시아경제** 이노인스트루먼트, 화웨이 인도네시아 네트워크 시장 관련 프로젝트에 광섬유용착접속기 단독 공급 나서 (p. 1)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32613065142592>)

**KOREA SHIPPING GAZETTE** 동남아항로/ '코로나사태 무색' 물동량 늘고 운임 상승 (p. 2-3)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25657](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25657))

**중기이코노미** 동남아 젊은 세대 주목...모바일쇼핑 연 39% ↑ (p. 4-6)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911>)

**의학신문** 코로나19 확산, 세계 각지 원격 의료 활용 박차 (p. 7-8)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434>)

## 이노인스트루먼트, 화웨이 인도네시아 네트워크 시장 관련 프로젝트에 광섬유용착접속기 단독 공급 나서

임소라 기자 최종수정 2020.03.26 13:06 기사입력 2020.03.26. 13:06

||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및 5G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매출 증가 기대

글로벌 광통신 접속기 및 계측기 전문 기업 이노인스트루먼트(대표 권대환)가 중국 최대의 네트워크·통신 장비 공급업체인 화웨이의 인도네시아 네트워크 시장 관련 프로젝트에 광섬유용착접속기를 단독 공급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노인스트루먼트는 화웨이와 광섬유용착접속기에 대한 독점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을 이번 3월에 완료했으며, 앞으로 향후 2년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COVID-19(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5G 및 FTTH 인프라 확충 등이 계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노인스트루먼트는 2020년 매출을 전년대비 약 30%까지 신장(약 620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화웨이는 네트워크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에 필수적인 장비인 광용착접속기 제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으며,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인도네시아에서 수도 이전 및 5G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인하여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서 매출 증가의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이번 화웨이와의 제품 공급 계약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협업체계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기반으로 망 사용을 근간으로 하는 재택근무나 언택트 소비 등과 같은 신규 업무 트렌드 환경 조성 및 사물인터넷, 원격의료, 인공지능(AI) 등 중장기적으로 4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설치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노인스트루먼트는 글로벌통신산업 인프라의 핵심인 광케이블 설치 시 필요한 제품과 솔루션 일체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광케이블은 5G 망 신규 설치 혹은 FTTH 네트워크 설치 등에 소요되며, 이노인스트루먼트의 솔루션은 광케이블 설치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동사의 제품과 솔루션은 글로벌 100여개의 국가에서, 주요 통신회사, 케이블 TV 회사 및 통신관련 유지 보수 업체 등 통신 관련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신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5G 및 FTTH 관련 투자 집행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광용착접속기의 판매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동남아항로/ '코로나사태 무색' 물동량 늘고 운임 상승

이경희 기자 2020-03-27 14:09

II 중국 대체수입처로 수요 증가...OOCL 인천-하이퐁노선 신설



올해 들어 동남아항로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이다. 1월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띠었지만 중국이 코로나 확산으로 몇 주간 공장 가동을 멈춘 2월엔 오히려 물동량이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반대 행보를 보여줬다.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우리나라와 동남아 8개국 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64만3666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만4158TEU에 비해 3.1% 성장했다. 수출화물이 0.5% 성장한 33만447TEU, 수입화물이 6.1% 성장한 31만3219TEU를 각각 기록했다.

수출은 제자리 걸음을 보인 반면 수입화물이 견실한 증가곡선을 그린 게 눈에 띈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 물동량은 수입화물 호조에 힘입어 각각 4.2% 13.2% 성장한 18만9718TEU 8만4384TEU를 기록했다.

월간 실적의 경우 1월은 2.9% 감소한 31만4568TEU, 2월은 9.7% 늘어난 32만9098TEU로 집계됐다. 1월엔 말레이시아와 홍콩을 제외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등 6개국이 모두 감소세를 띠 반면 2월엔 싱가포르 홍콩을 제외한 6개국이 상승세를 탔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등은 모두 두 자릿수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선사들은 코로나 사태로 중국 현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체 수입처로 동남아시아를 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사들은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의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동남아 현지 제품 생산이 하강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휴업의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남아항로도 침체 행렬에 합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운임은 상승세를 탔다.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20일 현재 상하이발 동남아항로 운임은 베트남 호찌민 254달러, 태국 램차방 214달러,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293달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10달러다. 지난달 이맘때에 비해 수십달러씩 상승했다.

특히 베트남항로 운임은 40달러 이상 인상됐고 태국 말레이시아 운임도 20달러대의 상승폭을 보였다. 동남아항로 운임은 2월에 10~20달러가량 하락했다가 3월 들어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한편 홍콩선사 OOCL이 현대상선의 선박을 빌려 부산·인천과 베트남 하이퐁을 연결하는 노선을 시작한다. 이 노선엔 현대상선과 천경해운이 1000TEU급 선박 2척을 배선하고 있으며 고려해운 남성해운도 선박 용선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 노선명은 하이퐁익스프레스(HPX)로, OOCL은 한국·베트남익스프레스(KVX)란 자체 이름을 붙였다. 첫 서비스는 4월5일 인천을 출발하는 <엠티티세나리> (MTT Senari)호다.

선사 관계자는 “동영해운에서 선박을 빌려 하이퐁 서비스를 하다 계약이 해지되면서 현대상선과 새롭게 제휴했다”며 “선박이 2배 늘어나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동남아 젊은 세대 주목...모바일쇼핑 연 39%↑

채민선 기자 기사입력 2020-03-30 10:28

|| '쇼피', 동남아 최대플랫폼...식료·생필·의류 등 저가제품 비중 늘어

6억 인구의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동남아시아 이커머스시장. 모바일쇼핑과 이커머스플랫폼에 친숙한 한 젊은 세대가 급증하는 동남아시아시장을 주목하는 얘기가 나온지 오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쇼피코리아가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한 '쇼피를 통한 성공적인 동남아시아 진출' 세미나에서, 쇼피코리아 사업개발팀 송송이 매니저도 동남아시아 이커머스시장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매니저는 "동남아시아 인구의 50%가 30세 이하이며, 00년대 출생한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며 "동남아시아시장 모바일쇼핑 성장률이 연평균 39%인 만큼,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모바일판매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쇼피(Shopee)는 동남아시아 최대 IT기업 Sea그룹이 설립한 동남아시아시장에 특화된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지난해 2분기 월간 활동 유저 수, 전체 다운로드 수, 사이트 방문 수 등의 항목에서 동남아시아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설립한 쇼피코리아는 한국 판매자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및 대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켓오픈, 판매자교육, 통합물류시스템 지원, 현지 마케팅 및 번역/CS 등 원스톱 수출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 인구 절반이 30세이하, 모바일세대를 주목하라

쇼피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남아시아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치 보다 2%p 높다. 지속적인 성장세 덕에, 2030년이면 동남아시아시장은 미국·중국에 버금가는 경제요충지로 성장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52%가 30세 이하로 전세계에서 젊은 세대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 역시 인구의 50%가 30세 이하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세대란 얘기다. 이에따라 동남아 인터넷 사용인구가 3억6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다. 또 젊은이들 대부분이 페이스북을 통해 교류한다.

동남아시아 인터넷경제는 2015년 40조원 규모에서 2019년 118조원으로 3배 성장했다. 2025년까지 약 345조원 규모로 커진다. 이커머스 사용자 또한 급증했다.

이커머스시장이 과거 5년간 7배 성장해 지난해 시장규모가 42조원이다. 과거에는 전자제품 등 값비싼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면, 최근에는 식료품·생필품·의류 등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패턴이 늘었다.

### 한류에 관심 높은 동남아 소비자, 쇼핑앱 체류시간 늘려야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송 매니저는 “동남아시아 이커머스에서는 1년 내내 쇼핑 페스티벌이 이뤄진다”며, “고객이 쇼핑앱에 체류하는 시간이 곧 소비로 직결되는 만큼, 모바일에 최적화된 기능으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쇼피플랫폼을 통한 동남아 시장진출을 제안했다.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K-POP 스타 동영상 조회수가 높은 지역이며, 한국 아이돌과 한류스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동남아시아에서 한류문화 콘텐츠를 경험한 인구가 3억5000만명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뷰티·패션뿐 아니라 먹방도 큰 인기를 끈다.

송 매니저는 헬스&뷰티, 홈&리빙, 유아용품, 식품 등의 카테고리에서 동남아시아 이커머스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쇼피플랫폼은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이 주 사용자인 만큼, 한국 패션에 관심도 많다. 한국 패션상품에 수요가 많지만, 아직까지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송 매니저의 설명이다.

한국에서도 젊은층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인 ‘커버넛’과 ‘누누핑거스’, ‘슈피겐’ 등은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보여줬다.

이들 브랜드는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 제품을 출시해 쇼피를 통해 선보이는 방식으로 젊은 층의 호응을 받았다. 또 쇼피플랫폼이 제공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서비스로 한국매장과 실시간 연결해, 한국의 신상품을 바로 배송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한국 크로스보더 셀러를 위한 쇼피의 지원**

쇼피는 한국의 크로스보더 셀러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판매수수료는 3%대로 저렴하며, 다양한 세미나와 교육 등을 통해 쇼핑물 운영 팁과 마케팅 방법, 성공사례 분석 등 유용한 정보도 공유한다. 또, 한국 셀러의 해외판매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현지어 번역 서비스와 국가별로 상이한 고객 응대방안 매뉴얼도 제공한다.

쇼피의 통합물류시스템(SLS)도 셀러의 비즈니스를 돕는다. 셀러가 한국내 쇼피물류센터까지만 상품을 발송하면, 나머지는 쇼피에서 통관 및 현지 배송을 진행해 물류 고민도 덜어준다.

송 매니저는 “쇼피는 셀러 매니지먼트 전담팀을 구성해 최신 마켓트렌드와 정책 업데이트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 쇼핑물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쇼피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의료기기·IT코로나19 확산, 세계 각지 원격 의료 활용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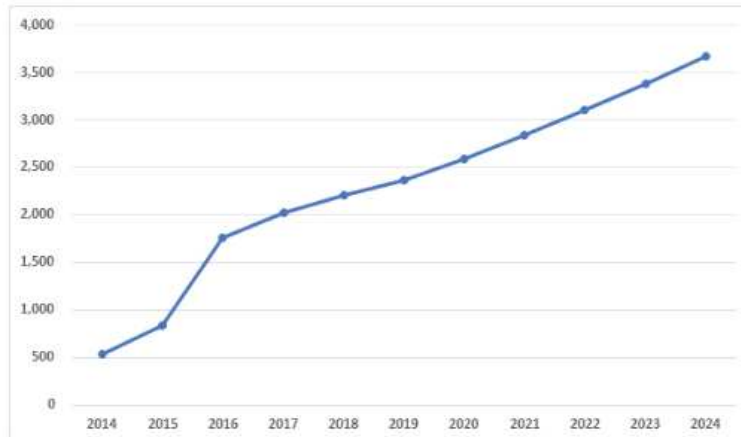
오인규 기자승인 2020.04.01. 05:50

II 미국, 5억불 예산 배정-인도네시아, 민간 서비스 협약 다수 체결..."시장 선점 중요"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의사소통과 소비, 투자하는 방법과 장소를 바꾸며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세계 각지에서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 활용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의 발전이 보급을 높이고 영역을 넓히고 있는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의료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고,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대체 의료 서비스로 확대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먼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최근 해외시장리포트를 통해 미국 내 코로나19 대응 긴급예산에서 메디케어 통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약 5억 달러의 예산 배정됐으며, 주요 보험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 의료 비용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미국 원격 의료 서비스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 IBIS World

구체적으로 시장조사기업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 원격 의료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4.7%의 폭발적 성장을 지속해 2019년 시장 규모가 24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웨어러블 모니터링 장치와 디지털화된 의료용 이미지 등이 개발되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의료비용과 의료 서비스 인력 부족 및 만성질환을 겪는 고령 인구의 증가 등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원격 의료 서비스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연방 및 주정부의 각종 법제정 노력이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원격 의료 기업 American Well의 서비스 수요는 미국 내 첫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이후 1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만 75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는 인도네시아는 극히 일부 섬에만 고급 의료 시설이 있는데, 중산층 소득 상승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건강 관련 인식 개선 등에 발맞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e-Health를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 협약 다수 체결한바 있다.

병원 예약, 원격 진료, 오토바이를 이용한 약 배송, 건강 정보 그리고 다양한 지불 옵션을 제공하고 협력 약국을 통해 건강에 관련된 용품을 판매하는 현지 최대 기업인 할로닥(HaloDoc)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가 2배 늘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e-Health 케어 앱에 대해 이용자가 만족하는 부분은 저렴한 가격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알권리 강화에 있다. 대면 상담을 통한 진료비는 쉽게 10만 루피아(7달러)를 넘어가나 앱을 통한 상담은 보통 회당 1만 5000루피아(1.1달러) 정도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할로닥 서비스 홈페이지

사용자는 의사의 사진과 경력 사항, 학업 배경, 상담비용 등 실질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를 선택할 수 있어 상담 시 의사에 대한 사전정보가 거의 없는 일반 대면 상담에 비해 의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중국, 대만, 러시아, 독일, 브라질 등이 의료진 부족과 격·오지 거주자 검사 어려움 및 병원 대기실을 잠재적 감염원으로 간주하는 분위기 속 원격 의료 분야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은 아직 원격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나 국내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강점으로 작용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더나아가 코트라는 “현재 원격 의료 서비스 분야는 시장 지배적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원격 진료 플랫폼을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업체의 플랫폼으로 쉽게 변경하지 않으므로 발 빠른 진출을 통한 시장 선점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